

큐라클, '2023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및 바이오텍 쇼케이스(Biotech show case 2023)' 참가

<2022-12-21> 난치성 혈관질환 및 대사성질환 혁신 신약 개발기업 큐라클 (365270, 대표이사 유재현) 이 제41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및 바이오텍 쇼케이스(Biotech show case 2023)를 통해 다수의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대면 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.

'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'는 매년 1월, 전 세계 제약/바이오 기업 및 투자자를 초청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투자 심포지엄이며, '바이오텍 쇼케이스'는 Demy-Colton사와 EBD그룹이 매년 1월에 개최하는 대규모 바이오 기술투자 컨퍼런스다.

큐라클 관계자는 "그동안 우리는 의학적 차별화 가능성, 시장의 매력도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'궤양성 대장염(Ulcerative Colitis)' 치료제 인 CU104를 차세대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선정했다"며 "내달 9일부터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다양한 모델의 동물실험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내년에 미국 FDA에 제출 예정인 글로벌 임상 2 상 임상시험계획서(IND)를 소개하며 기술수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하겠다"고 말했다.

궤양성 대장염은 원인 불명의 염증성 장질환으로, 2019년 기준 시장규모는 주요 선진국 8개국에서만 약 7조원을 기록했다. 매년 약 6%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12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. 치료제로는 생물학적제제인 항 TNF-a 제, 항 interleukin 제 등과 최근 발매된 JAK 억제제가 사용되고 있으나, 치료평가 기준인 임상적 관해율 (Clinical Remission)이 20~30% 정도로 제한적이고 안전성 면에서도 여러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어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큰 영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큐라클 관계자는 "최근 CU06(당뇨성황반부증)의 미국 임상 2a 상 개시와 더불어 CU104(궤양성대장염) 파이프라인 또한 임상 2 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,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"며 "그동안 다양한 채널로 진행해온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수출 및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" 고 전했다.